

첫째 주 - 하갈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각자 여러분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이름, 학년, 전공, 기숙사, 등
- 취미 하나씩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창세기 16 장: 하갈과 아브람,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 광야에서의 하갈

창세기 21 장 8-21 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a. 어떤 인물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 닿습니까? 또 어떤 인물이 여러분에게 가장 생소하게, 또는 여러분과 상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 b. 본문에서 사라, 아브라함, 하갈이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a. 사례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자식이 없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례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갈이 중요한가?

하갈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이름 지어 부른 인물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엘 로이”(El Roi),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천한 노예였거나 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끽할 자유나 힘이 없었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갈은 한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하갈”이라 부르지 않고 단순히 “여종”(slavegirl)이라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혹은 “여호와와 사자,” 창 16:7)가 광야에 버려진 하갈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갈은 자신의 이름 “하갈”로 불려집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갈은 하나님께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신분의 귀천을 떠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갈은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택하신 아브라함의 집에 혈통으로나 혼인으로나 속하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모든 나라와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집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에게서 나올 후손들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한 민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사랑은 그 너머로 뻗어 나갑니다.

어떻게 하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아는 한에서 하갈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래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당하고, 아브람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한 여종의 주인으로서 아브람과 사래가 그녀를 돌보아 줄 의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갈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로부터 경멸과 멸시와 학대를 받았고, 그것은 십자가 형벌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실 때 그는 신음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살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당시에 도 괘시 받았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¹ 복음서의 예수님이 그의 여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창세기의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대하는 태도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그의 여제자들을 살피셨고, 또 예우하고 존중했습니다.²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는 더이상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³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연합은 하나님과 인류의 연합 뿐만 아닌, 민족과 나라와 인종 간의 연합, 즉 사라와 이삭의 자손들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들 간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 없이 다 하나입니다.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두 한 가족입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¹ 누가복음 7 장 11-18 절; 누가복음 7:36-50 절; 누가복음 8 장 40-56 절.

² 누가복음 10 장 38-42 절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 4 장 1-30 절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³ 갈라디아서 3 장 26-29 절.

⁴ 갈라디아서 3 장 28 절.

- a. 하나님이 사라, 아브라함, 하갈에게 하신 말씀들 중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삶에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까?
- b.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섯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서술적 형태의 이야기(narrative); 모세오경 중 한 권;⁵ 저자—(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1446 B.C. 에서 1406 B.C. 까지.⁶
2. **역사적/신학적 해석:**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 민족을 택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 해 줍니다.
3. **문화적 해석:** 하갈의 사건이 벌어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할 때 그녀의 여종이 대신 그녀의 남편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고 대를 잇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4. **성경의 큰 그림:** 신약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⁷ 즉 죄와 불순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믿습니다.⁸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5. **성령의 인도하심:** 하갈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엮여진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한 노예였고,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초반부터 이미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과 축복이 크고, 넓으며, 먼 곳 까지 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치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 주제들, 즉 “깨어진 가정”이나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죄, 불화, 불신, 모진 말들로 인해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⁵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⁶ “Genesis,” *International Bible Society*,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genesis/>.

⁷ 창세기 3 장 14-15 절.

⁸ 창세기 3 장.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어쩌면 이 가정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깨어짐, 불친절함, 불성실함, 불신, 정직하지 못함, 학대와 폭행, 또는 의미 없는 힘싸움들을 경험하고 본 가정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서로를,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만져 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